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의 비용 절감 추진…노동 생산성 상승
- WSJ: 트럼프, 새 연준 의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 CNBC: 연방 재무장관 "소득 양극화 끝났다"
- YahooFinance: 리사 쿡 연준 이사 "인플레 둔화 없으면 금리 인상 나설 것"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20만 건 아래로

[미국 금융]
- WSJ: 금값 수개월 반에 다시 강세

[중동전쟁]
- CNBC: 이란, "미국이 다시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된 것 같다"

[주택]
- USAToday:미 주택 구입 위해 연소득 11만 불 필요해
- WSJ: 미 주택용 목재 가격 급등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Labor Productivity Picks Up as Firms Seek to Curb Costs
미 기업의 비용 절감 추진…노동 생산성 상승

- 미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2분기 노동생산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다. 오늘 목요일 연방노동통계국의 발표다.
- 생산성은 연율 1.4% 증가한데 반해 단위 노동 비용은 예상치보다 낮은 1.3% 상승에 그쳤다.
- 노동비용은 기업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인데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 자극 없이 임금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



기사

WSJ: Trump Has Called Warsh Repeatedly Since He Became Fed Chair
트럼프, 새 연준 의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 트럼프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례를 깨고 있다.
- 트럼프는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의 급부상 하면서 이 이슈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워시 의장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의 접촉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며 워시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기사

CNBC: Scott Bessent just declared the K-shaped economy is over, saying he's 'sick of hearing about' it—but the data would beg to disagree
연방 재무장관 "소득 양극화 끝났다"

- 연방 재무장관이 상하위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양극화'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하위 계층의 소득이 반등하는 'C자형 경제'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 베센트 재무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K자형 경제라는 말을 듣는 데 지쳤다"며 "양극화는 확실히 끝났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실제 데이터에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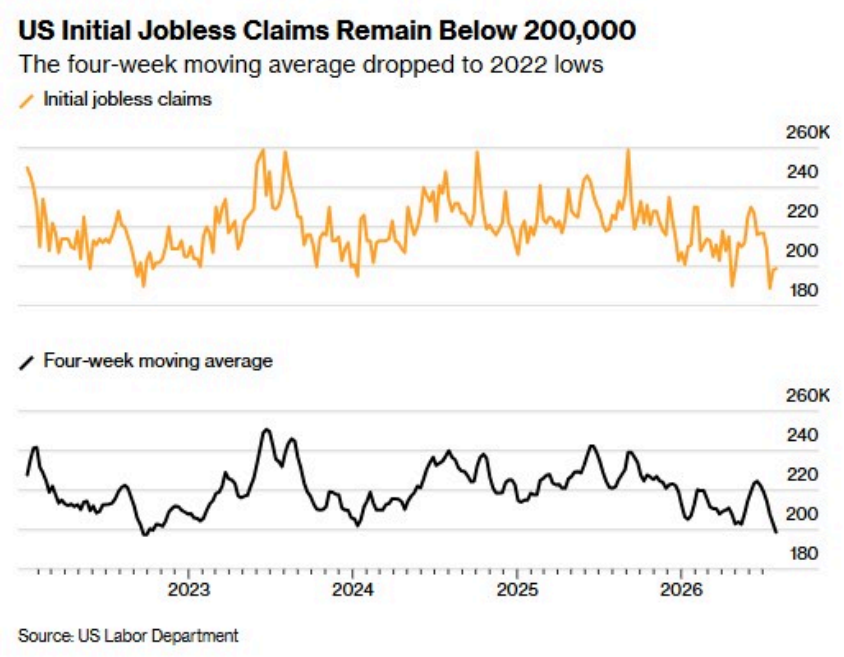
YahooFinance: Fed governor Lisa Cook: 'I am prepared to act' on interest rates if inflation remains elevated
리사 쿡 연준 이사 "인플레 둔화 없으면 금리 인상 나설 것"

-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곧 꺾이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쿡 이사는 "현재로서는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잔단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는 대부분 지나갔으며, 초기 관세 영향이 줄어들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Remain Stable Below 200,000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20만 건 아래로

- 미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별다른 변동 없이 3주 연속해 20만건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 상황이 견조한 편이다.
- 연방 노동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주에 신규 실업 청구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약간 상승했는데 20만 아래를 기록했다. 청구건수가 낮은 수치를 보였던 지난 1969년 이래 가장 길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
- 변동성을 줄여 측정하는 4주 평균의 경우도 지난 2022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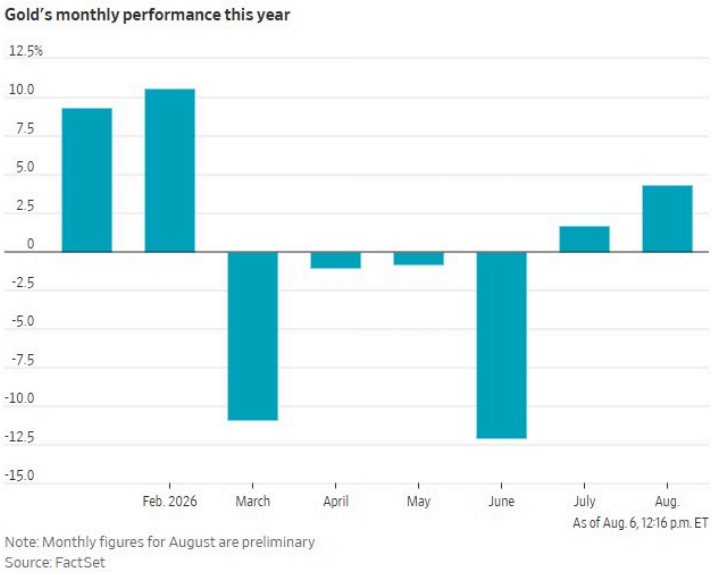
기사

[미국 금융]

WSJ: Gold Is Roaring Back to Life
금값 수개월 반에 다시 강세

- 금값이 수개월 만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8월 들어 금 가격은 불과 며칠 만에 5% 이상 치솟으며 강력한 상승세로 출발했다. 올해 초의 폭발적인 상승장 이후 이 같은 급등세는 처음이다.
- 당초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금에 주목하지 않은 가운데 이란 전쟁 여파로 초반 상승 모멘텀이 크게 꺾였었다.

- 통상 금은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낮아 채권과 비교해 보유 기회비용이 적을 때 강세를 보인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이자를 주는 채권 등 오히려 수익형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기사

[중동 전쟁]

CNBC: U.S. ready to return to 'commitments,' Iran says as Strait of Hormuz deal looms
이란, "미국이 다시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된 것 같다"

- 이란 외무차관 Kazem Gharibabadi는 자세한 설명 없이 미국이 "약속을 지키며 복귀할 준비가 된 것 같다 밝혔다.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담은 오만과의 공동 성명서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 이번 협상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일단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 통행료를 안 받기로 임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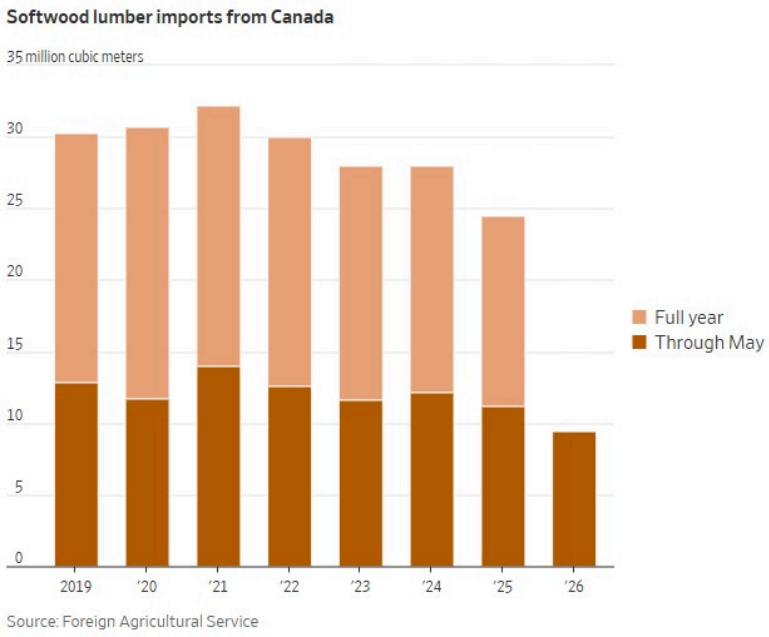
USAToday: This is the salary needed to afford a typical US home in 2026
미 주택 구입 위해 연소득 11만 불 필요해

- 미국에서 중간 가격대 주택을 무리 없이 사려면 여전히 연간 약 11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부동산 중계 플랫폼인 Redfin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필요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단 0.5% 줄어드는 데 그쳤다.
- 미국 가구 중간 소득이 8만 7,599달러로 4% 올랐으나 주택 가격도 2.2% 상승했다.
- 여기에 6%대 중반의 높은 모기지 금리가 이어지며 대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기사

WSJ: Lumber Prices Surge Despite Housing Slump
미 주택용 목재 가격 급등

- 주택 매매 침체와 리모델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 목재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 2022년 팬데믹 당시의 수요 폭발과는 달리, 이번 상승세는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다.
-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10% 침엽수 관세로 목재 수입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가격 하락 여파로 북미 전역의 제재소들이 감산과 폐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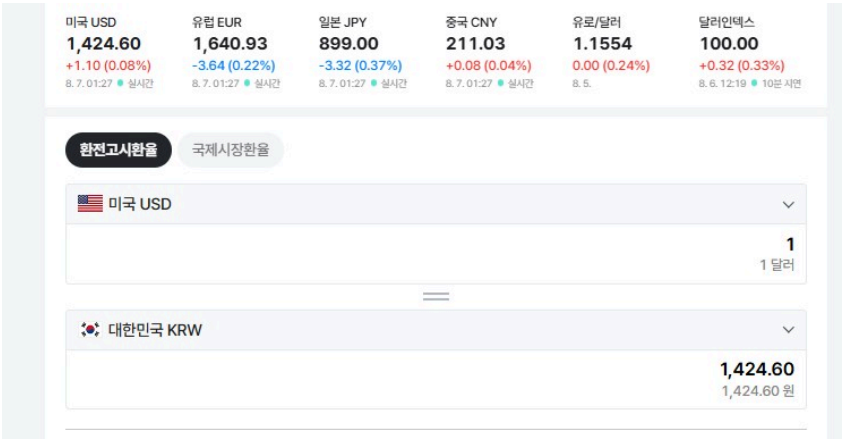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4,013.70	-335.3	-0.62%
US 500	7,707.70	-15.7	-0.20%
Dow Jones	54,004.85	-344.27	-0.63%
S&P 500	7,707.68	-15.74	-0.20%
Nasdaq	26,312.80	-50.64	-0.19%
S&P 500 VIX	15.43	-0.38	-2.40%
Dollar Index	99.862	+0.316	+0.32%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	-28/32	5.214	0.043
10-Year Note	4.375	-26/32	4.676	0.059
7-Year Note	4.375	-4/32	4.529	0.062
5-Year Note	4.375	-25/32	4.396	0.062
3-Year Note	4.125	-2/32	4.309	0.065
2-Year Note	4.25	-23/32	4.252	0.060
1-Year Bill	0	1/32	4.053	0.026
6-Month Bill	0	0/32	3.954	0.005
3-Month Bill	0	0/32	3.823	0.000
1-Month Bill	0	0/32	3.690	0.010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